

농진청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성공 디딤돌 역할 '톡톡'

농가소득 평균 28% ↑
영농 조기정착 기여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농가 소득을 평균 28% 끌어올리며, 청년농업인의 사업 성공과 영농 조기 정착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경영체 40개소를 선정해 시설·장비·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17~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결과 사업 참여 경영체 총 160개소의 평균 소득이 사업 전 5,798만원에서 사업 후 7,440만원으로 약 28%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평균소득 증가율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7년에는 사업 전 5,019만원에

서 사업 후 6,109만원으로 21.7% 증가했다. 2018년에는 5,984만원에서 7,839만원으로 31% 늘어났다. 또한 2019년에는 6,019만원에서 7,792만원으로 29.5%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170만 원에서 8,019만 원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여주에서 '가지' 농사를 짓고 있는 주상중 대표(건강한 농민)는 지난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을 도입했다. 토양에서 재배하는 가지과 작물은 이어짓기(연작)를 할 경우 사들여 말라 죽는 풋마름병 등의 연작 피해가 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양액 재배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 농업기술 컨설팅을 받은 것이다. 양액 재배로 바꾸고 기술 컨설팅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16.6% 향상되었고, 매출액은 20.8% 증가했다. 상품화율도 1.9% 좋아졌다.

무주에서 '도라지'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박민철 대표(산마을영농조합법

인)는 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라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라지를 연간 30톤 가량 수매해 도라지 청·절편·정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이 크게 늘어 2019년 12억원에서 2020년 2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도라지를 세척·박피·선별하는 작업에 마을주민 15명이 함께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40개소에서 80개소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노형일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장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앞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13일 전주영생고등학교를 방문해 우리 쌀로 만든 떡과 식혜 등을 전달하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힘겹게 수능 준비 중인 학생들과 교사를 응원했다.

'힘내세요! 수험생, 기운내세요! 선생님' 전북농협, 전주영생고에 우리쌀 떡·식혜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3일 영생고등학교(교장 이장훈)를 방문해 우리 쌀로 만든 떡과 식혜 등을 전달하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힘겹게 수능 준비 중인 학생들과 교사를 응원했다.

이날 전달식은 다가오는 수능의 날을 맞아 수능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과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힘을 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장훈 교장은 "비대면 학습이 많아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간식까지 전달해줘서 정말 고맙다"

며 "수능까지 남은 시간 교사들은 더욱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꼭 전달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특히 고3 수험생과 학생 지도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협은 농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처럼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전주중앙중서 '1사1교 금융교육'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12일 전주중앙중학교에서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모의주식'을 주제로 교내 경제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돈의 필요성과 돈의 올바른 가치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주식투자 교육을 위한 자본시장 관련 교육 및 모의투자 활동지를 통한 투자 체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온라인 게임 파워에서 유료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서 사용하는 행위 및 도박의 위험성 등에 대한 강의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식에 대한 올바른 금융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수요 또한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금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사1교 금융교육'이란 금융회사와 인근의 초·중·고교가 결연을 맺고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윤상 기자

농촌지역 다문화여성 전문농업인으로 키운다

김제농협, 다문화 여성대학 개강... 현장 실습 등 제공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13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문 여성 농업인로의 육성을 위해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여성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정용 조합장과 임직원, 필리핀·우즈베키스탄·라오스·일본·몽골 등 결혼이주여성 수강생 12명이 참석했다.

다문화 여성대학은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된다. 한국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언어 및 문화이해, 농업현장 실습, 전통음식 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정용 조합장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보다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지원을 위해 단계별 농업교육, 1:1기초농업교육, 다문화여성대학,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완주 인프라 모두... 더블 생활권 입지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3차, 이달 오픈



완주 모아미래도 광역 조망도

완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0순위로 꼽히는 입지 조건을 자랑하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완주 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의 후속단지 공급이 예정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고품격 아파트 완주 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는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완주운곡지구 공블록 공1블록에 위치하며 2차(민간임대 684세대), 3차(일반분양 309세대) 총 993세대 규모로 수요층이 두터운 50㎡/74㎡/84㎡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4B+ 특화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했으며,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해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타입에 따라 더블팬트(일부세대), 대형트레스룸(일부세대) 등 소비자가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시행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로 구성되는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는 세금 부담이 없으며 입주자들이 살고보고 내 집 마련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주변 신규아파트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3차는 완주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완주군지부, 완주경찰서, 완주군신립종합 등 다양한 행정기관이 밀집하고 공공·유관기관 이전 및 신설이 예정된 복합행정타운 중심에

위치하며, 남측 전주 에코시티와 인접해 완주와 전주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완주종합스포츠타운(예정), 신봉천 수변공원(예정) 등 다양한 여가 문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용봉초 완주군립중앙도서관 등의 교육시설도 마련돼 있다.

또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완주IC,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IC, 호남고속도로 익산IC, 17번 국도 등 광역 교통망과 인접해 전주의 이동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완주의 쾌적한 환경과 함께 전주의 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3차는 완주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완주군지부, 완주경찰서, 완주군신립종합 등 다양한 행정기관이 밀집하고 공공·유관기관 이전 및 신설이 예정된 복합행정타운 중심에 위치하며, 남측 전주 에코시티와 인접해 완주와 전주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완주종합스포츠타운(예정), 신봉천 수변공원(예정) 등 다양한 여가 문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용봉초 완주군립중앙도서관 등의 교육시설도 마련돼 있다.

또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완주IC,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IC, 호남고속도로 익산IC, 17번 국도 등 광역 교통망과 인접해 전주의 이동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완주의 쾌적한 환경과 함께 전주의 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3차는 완주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완주군지부, 완주경찰서, 완주군신립종합 등 다양한 행정기관이 밀집하고 공공·유관기관 이전 및 신설이 예정된 복합행정타운 중심에 위치하며, 남측 전주 에코시티와 인접해 완주와 전주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일반산업단지(예정),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전주과학산업단지 등 전북을 대표하는 산업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올해 상반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와 함께, 완주 복합행정타운의 미래편을 한 몸으로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모아미래도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를 곳곳에 적용해 완주복합행정타운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5월 오픈 예정인 완주 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3차의 견본주택은 전주시덕진구 송촌동 2가 1332-3번지에 위치한다.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완주=이중복 기자

'찾아가는 직업훈련' 도내 인력 수요조사 착수

전북인적자원개발위, 제1차 위원회 회의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우병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는 13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전현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라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등을 비롯한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논의와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포함)' 사업에 대한 협의와 2021년도 전북지역 인력 수요조사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직업훈련'이란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산지역을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지역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산업 업종 종사자들의 고용유지와 이·전직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전북인적자원개발사업에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조선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역 고용위기 산업으로 선정하고, 교육훈련 수요를 발굴해 적시에 훈련과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김윤상 기자

이물러 도내 5만~200인 규모의 사업체 1000여개를 대상으로 직업분류별 인력 현황, 훈련 수요 및 필요분야 등을 조사하는 '전북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운영 착수보고회를 함께 진행했다.

이 수요조사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진행되는 조사로 지역산업 및 고용상황을 고려한 인력양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윤방섭 공동위원장(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산업의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재난대처능력 '인정'

'ISO22301' 인증받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위기상황에서도 연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은 각종 재난·재해로 임무가 중단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 내 핵심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인증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주관하고 있다.

공단은 ▲장애발생 비상대응 조직 구성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정 ▲재해복구시스템 자동화 등을 통해 24시간 365일 대국민 연금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모의 훈련 회수를 기존 연 4회에서 36회로 확대해 조직 구성원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농촌일손돕기

농협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재호)와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채규오)는 13일,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지리산농협 육묘장을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농촌인력 부족 상황을 개선코자 실시됐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육묘작업 및 경제사정장 외부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부족한 일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재호 전북본부장은 "농협은 5천만 국민의 생명창고인 농업·농촌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손 돕기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